의학신문

서울대치과병원 의료기기 정보센터, 식약처 감사패 수상

정윤식 기자 승인 2017.11.13 15:2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가 최근 밀레니엄 호텔에서 개최된 '제 5회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사례연구 워크숍'에서 식약처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는 지난 2010년 고대구로병원과 동국대일산병원이 참여한 의료기기 부작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 6개의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감시센터', 2012년 10개의 '의료기기 안전성정보모니터링센터'로 발전해왔으며 2013년부터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연구회'를 시작했다.

현재 자발적 참여기관으로 서울대치과병원과 가천대길병원을 포함한 19개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가 구축돼 해당 지역 내 의료기기 부작용 사례를 수집·보고·분석해 환자안전과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이번 워크숍 시상식에서 서울대치과병원은 사업비 지원 없는 자발적 참여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감사패를 받은 것.

이종호 서울대치과병원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 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2017년 자발적 참여기관에서 2018년 정식 센터 지정을 받기 위해 사업 신청을 할 예정이며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기 부작용의 수집과 분석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 2017년 모니터링센터 활동 최우수 센터는 동국대일산병원이 수상했다.

정윤식 기자 21hero@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